

부모의 폭력 및 지지행동이 이성교제폭력에 미치는 영향

장 회 숙*

[요 약]

본 연구는 부모의 폭력 및 지지행동이 자녀의 이성교제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 그 영향의 경로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폭력/지지행동과 이성교제폭력 사이를 갈등해결기술, 우울, 비행이 매개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이성교제폭력에 다른 영향을 주는지 조사했다. 부모의 행동과 관련된 세 개 변인은 부부폭력, 아동학대, 부모지지이다. 본 연구의 표본은 전체 14개 대학의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760명 남녀 대학생이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사용해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경험은 이성교제폭력의 확률을 높이고 있었으며 아동학대와 이성교제폭력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비행행동만이 검증되었다. 아동기의 학대경험은 성별에 관계없이 비행을 통해 이성교제폭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선행연구와 달리, 본 자료에서는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은 이성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폭력행동보다 부모의 지지 수준이 자녀의 폭력에 더욱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수준의 부모지지는 자녀의 갈등해결기술, 우울, 비행에 영향을 주면서 이성교제폭력과 연관되어 있었다. 부모의 비지지적인 태도는 특히 여성들의 갈등해결기술을 악화시키며, 남성들의 비행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이성교제폭력을 줄이기 위한 실천적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 이성교제 폭력, 아동학대 경험, 부모폭력 목격, 부모 지지도, 구조방정식 모형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1. 서론

이성교제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성교제폭력 발생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심각한 형태의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도 19%(장희숙·조현각, 2001)에 달해서 폭력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신체적 피해가 적지 않다. 이성교제폭력은 흔히 가정폭력의 훈련장으로 불리며(Jorgensen, 1986), 아동기에 경험한 폭력과 가정폭력을 연결하는 통로(Makepeace, 1981)로 간주되면서 그 심각성이 주목된다. 이는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거나 아동학대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이성교제폭력으로 발전하고 이로 인해 정형화된 폭력행동이 자신의 가정을 이루면서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성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함에 따라 폭력의 실태와 양상, 원인과 결과를 주제로 한 여러 편의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이성교제폭력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는지에 관한 경험적 분석은 국내외 문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기에 경험한 가정폭력이 어떤 매개요인에 의해서 이성교제폭력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성교제폭력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관점 중 하나는 폭력의 세대간 연속성 가설이다. 사회학습 이론에서 파생된 폭력의 세대간 전승 이론은 가정에서 폭력을 관찰한 구성원은 폭력행동을 모방할 확률이 높다고 전제한다. 특히 영향력 있는 가족구성원이 모델이 되거나 관찰한 행동이 보상을 얻는 경우 학습의 효과는 높아진다. 예를 들면,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은 부모가 지닌 지위, 능력, 힘에 의해서 폭력을 모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대체로 손실보다는 이득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가정이 사적인 공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외부의 개입과 사회의 통제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폭력을 사용해서 목적인 바를 이루는 것을 관찰하면서 아동은 폭력을 갈등해결의 효율적인 행동양식으로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에서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은 성장 후 친밀한 남녀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기초로 성장기에 폭력에 노출된 경험은 이성교제폭력의 중요한 요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로 상당수 연구들이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과 이성교제폭력과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다(e. g. O'Keeffe et al., 1986; Wolfe & Korsh, 1994). 그러나 두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들(e. g., Riggs & O'Leary, 1996; Stets & Pirog-Good, 1987)도 있다. 아동학대 관련 연구들에서도 아동기의 학대경험과 이성교제폭력의 상관관계를 입증한 결과들(e. g., DeMaris, 1987; Sigelman et al., 1984)과 그렇지 않은 결과들(e. g., O'Keeffe et al., 1986; Stets & Pirog-Good, 1987)로 나뉘고 있다. 이와 같이 일관되지 않는 연구결과들은 이성교제폭력과 관련한 폭력의 세대간 연속성 가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음의 두 질문을 던진다. 첫째, 가정에서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이성교제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폭력 경험과 이성교제폭력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서 폭력의 세대간 연속성 가설을 검토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둘째, 이성교제폭력에 대한

학대경험의 효과는 부모폭력 목격이나 아동학대가 단독으로 미치는 영향이기보다는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이성교제폭력의 연관성은 두 변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매개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폭력행동을 유발시키는지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Kaufman과 Zigler(1987)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들 중 30%가 성인이 되어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Jaffe 등(1990)도 성장기에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남성이 폭력을 행사할 확률은 30%라고 추정했다. 그렇다면 어렸을 때 폭력에 노출된 세 명 중 두 명은 폭력의 순환을 깨뜨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누구일까? 이는 달리 말하자면 학대를 받거나 부모폭력을 목격한 개인이 폭력행동을 하지 않도록 완화시켜 주는 요인들에 관한 질문과 연결된다. 학대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원인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몇 편의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방식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한다. Holden과 Ritchie(1991)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도 아동들이 적응을 잘하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Jones(1997)의 연구에 의하면, 양육자의 관심과 지지를 많이 받고 자란 이들은 세대에 걸친 폭력의 순환을 깨뜨리는 경향이 높다고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폭력에 노출되었어도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이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을 막아주는 방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본 연구는 부모의 폭력행동 뿐 아니라 부모의 지지행동을 중요한 변수로 지정하고 이성교제폭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탐색해 보려고 한다.

부모의 폭력행동과 이성교제폭력을 매개하는 요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부모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성교제폭력을 예측하는 여러 위험요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폭력으로 기인하는 문제들 가운데 자녀의 비행행동과 우울증은 폭력가정의 아동에게 나타나는 외현화 및 내재화 반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지적되고 있다(신혜섭, 2000; 조미숙, 1998; Fantuzzo & Mohr, 1999; Kaplan et al., 1998; Sternberg, 1993). 또한 폭력적인 부모의 자녀들은 갈등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기술들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면서 낮은 수준의 갈등해결기술을 보인다(Jaffe et al., 1990). 이와 비슷하게, Magdol 등(1997)은 이성교제폭력의 주요 예측변인으로 비행경력을 들고 있으며, 장희숙 외(2001)는 우울증을 발견하고 있다. 이성교제폭력의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낮은 수준의 갈등해결기술(Lloyd, 1987; Margolin et al., 1989)이 문헌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의 영향/위험요인들은 폭력가정의 자녀나 폭력행동을 행사할 확률이 높은 개인의 특성을 밝혀줄 뿐 폭력행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는 위험과정을 개념화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비행횟수, 우울 수준, 갈등해결기술을 중심으로 아동기의 폭력경험이 이성교제폭력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러한 관계가 여성과 남성에게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행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녀의 이성교제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부모의 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부부폭력, 아동학대, 부모지지를 조사하였다. 아동기의 폭력경험과 이성교제폭력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갈등해결 기술, 우울, 비행을 설정했다. 이 연구는 특별히 심각한 수준의 이성교제폭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 개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폭력과 지지행동은 자녀의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갈등해결기술, 우울, 비행은 부모의 폭력/지지행동과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셋째, 부모의 폭력과 지지행동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가? 위의 질문들은 폭력행동이 세대에 걸쳐 대물림하는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해서 이성교제폭력과 관련한 폭력의 세대간 연속성을 재검토하게 한다. 나아가 가정에서의 경험과 폭력행동을 연결하는 요인들을 찾아내 이성교제폭력에 대한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에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1) 부모의 폭력과 이성교제폭력

폭력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는 폭력의 순환 개념과 폭력의 세대간 연속성 가설은 사회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신념들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학습 이론에서 파생된 폭력의 세대간 연속성 가설은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나중에 폭력을 사용할 확률이 높다고 예측한다. 가정에서 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폭력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회학습 이론(Baundra, 1977)이 제시하는 몇 가지 개념들을 근거로 유추할 수 있다. 첫째, 아동은 가정에서 폭력을 직접적으로 관찰한다. 둘째, 폭력행동의 모델이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부모이다. 셋째, 가정폭력의 특성상 폭력행위의 긍정적인 결과를 자주 목격한다. 사람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단순히 그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행동의 결과에 따라 모방행위를 결정한다고 한다(Baundra, 1977).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외부의 개입과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폭력을 사용하는 부모가 상대부모를 통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동은 폭력이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직접 학대를 당하는 아동의 경우에도 비록 거부감과 분노를 느끼지만 자신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폭력의 긍정적인 결과를 인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은 직접적인 관찰, 모델의 효과, 긍정적 결과들로 인해서 학습의 효과를 증대시킨다. 따라서 폭력가정의 아동들은 폭력을 적합한 행동양식으로 인지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이해함으로써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논리는 친밀한 남녀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도 적용된다. 즉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들은 상대방의 행동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이성교제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높다고 전제할 수 있다.

이성교제폭력 관련문헌들에서 폭력의 세대간 연속성 가설을 지지하는 점증들은 상당수 있다(e.g., Gwartney-Gibbs et al., 1987; Kalmus, 1984; Marshall & Rose, 1988; O'Keeffe et al., 1986; Riggs et al., 1990). 이 연구들은 부모폭력을 목격한 자녀들이 상대집단에 비해 로맨틱한 관계에서 폭력을 허용하는 수준이 높았으며 실제로 폭력을 사용하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들 역시 이성교제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g., Sigelman et al., 1984 :

Straus & Smith, 1990). Straus와 Smith(1990)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했거나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아동들은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있을 수 있는 행동이며 때로는 필요하다고까지 생각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저자들은 어떤 형태이든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은 친밀한 이성에게 폭력을 행사할 위험수위가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 가정폭력의 피해경험과 이성교제폭력의 연관성을 발견하는데 실패한 연구들도 있다(e.g., Comins, 1984; Follingstad et al., 1992; Riggs & O'Leary, 1996; Simons et al., 1998; Stets & Pirog-Good, 1987). 실제로 부부폭력 분야에서 일관성 있게 입증되고 있는 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폭력행동의 상관관계는 이성교제폭력과 관련하는 경험자료에서는 그 증거가 불충분한 편이다. Kaufman과 Zigler(1993)는 학대에 노출된 경험이 폭력행동을 유발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세대에 걸친 폭력의 연속성 가설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비난한다. 저자들은 기존연구의 한계를(i.e., 회고적 조사, 통제집단의 결여, 편중된 표본) 지적하면서 학대경험과 폭력행동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가해자를 조사대상자로 하고, 학대에 노출된 경험은 있으나 비폭력적인 사람들을 분석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폭력의 순환 비율을 실제 이상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Hunter와 Kilstrom(1979)의 연구에서는 세대에 걸친 폭력의 발생률이 18%인 반면, 가해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Rosenbaum과 O'Leary의 연구(1981)는 82%의 발생률을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 회고적 횡단분석연구인지 혹은 반회고적 추적조사(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인지, 학대를 어떻게 정의했는지에 따라서 과거의 학대경험이 폭력행동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연구들마다 다르게 나타난다(Kaufman & Zigler, 1993). 이와 같이 상반된 견해와 연구결과들은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과연 이성교제폭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국내자료를 통해 재확인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부모의 지지와 이성교제폭력

학대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폭력을 모방하지만 어떤 이들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세대간 폭력을 반복하는 집단과 중단하는 집단을 비교한 연구들(e.g., Egeland, 1988; Egeland & Jacobvitz, 1984; Hunter & Kilstrom, 1979)은 몇 가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밝히고 있다. 가난,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등은 위험요인에 속하며 사회지지체계,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 상담경력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목할 만 하다. Kaufman과 Zigler의 연구(1987)에 의하면 부모 중 한 사람에게서 관심과 지지를 받은 자녀는 세대에 걸친 폭력을 반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에 노출되었어도 한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고 성장한 이들은 폭력의 순환고리를 끊는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에 관련한 연구들(Jones, 1997; Kinard, 1995)에서도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아동의 심각한 부적응을 줄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Caliso와 Milner(1994)는 부모 중 한 사람의 지지는 자녀에게 인지 및 정서적 지원 뿐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 역할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최근 들어 부모폭력을 목격한 자녀들에 관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McCloskey 등 연구(1995)에 의하면,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는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들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Neighbors 등의 연구(1993)에서도 어머니와의 강한 유대감이 청소년의 잠재적인 부적응에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모의 관심과 지지가 자녀의 정서적 욕구를 채우게 되면서 부모폭력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성교제폭력과 관련한 연구에서 특별히 부모의 행동에 초점을 둔 Simons 등의 연구(1998)는 부모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폭력행동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러한 검증들을 기초로 본 연구는 부모의 지지행동을 부모의 폭력행동과 더불어 이성교제폭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독립변수로 지정하였다. 연구의 초점은 마찬가지로 부모지지가 어떻게 자녀의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두고 있다. 탐색적인 성격이 강한 부모지지에 관한 분석은 부모의 폭력행동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동일한 매개변수들을 사용해서 검증하였다.

3) 부모의 폭력과 이성교제폭력의 매개변인

폭력의 세대간 연속성 가설을 반증하는 연구들은 가정폭력의 피해경험이 이성교제폭력의 필요충분 조건이 아님을 시사한다.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거나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이 다른 심리 및 상황적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폭력행동을 표출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폭력을 모방하기 쉬운 비슷한 상태의 고위험 상황 속에서 폭력과 비폭력 행동을 구별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학습 이론은 폭력가정의 아동들이 폭력을 학습하는 과정에 여러 방식이 있다고 말한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면서 가까운 이성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배운다. 또한 폭력적인 부모로부터 폭력이 정당하다는 교훈을 얻는다. 동시에 그들은 폭력 이외의 대안적이고 건설적인 갈등해결방법을 학습하지 못하면서 대인관계기술을 향상시키지 못한다. 결국 이들은 비폭력적인 갈등해결방법의 긍정적인 결과를 관찰하지 못한 채, 폭력을 갈등해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한다. 기존 연구들은 폭력을 사용하는 이들이 비폭력 집단에 비해 갈등해결기술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e.g., Lloyd, 1987; Margolin et al., 1989). Choice 등(1995)은 부모폭력을 목격한 남성이 비효율적인 갈등해결기술을 매개로 자신의 아내를 학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위의 이론과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의 폭력은 자녀의 갈등해결기술을 저하시키고 그러한 기술부족이 또 다른 폭력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로도형이 부부폭력에서와 같이 이성교제폭력에도 적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모델링 관점과 달리, 부모의 폭력행동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면서 자녀의 폭력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시각이 있다. 폭력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소홀하거나 일관성이 결여된 양육태도를 보이면서 자녀들과의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한다. 그들의 권위적이고 위협적인 훈육방법(Cummings & Davies, 1994)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청소년기 자

너들의 비행행동을 억제하는 지도와 감독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실제로 부모폭력 목격과 아동학대의 영향을 다룬 연구들(e.g., 신혜섭, 2000; 조미숙, 1998; Fantuzzo & Mohr, 1999; Fergusson & Horwood, 1998)은 비행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아동들이 나타내는 대표적인 외적 반응으로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이성교제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과거에 비행경력을 갖고 있다는 자료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e.g., 장희숙 외, 2001; Magdol et al., 1997). 따라서 과거의 비행행동은 이성교제폭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비행과 이성교제폭력간의 상관관계는 부모의 폭력행동 또는 부모의 비지지적인 양육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비행은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이성교제폭력 양자간의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비행행동이 폭력가정의 아동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외적행동이라면 내적인 문제를 대표하는 변인으로 우울증을 들 수 있다. 부모의 폭력은 자녀로 하여금 공격행동 뿐 아니라 소극적이고 과잉 통제된 행동을 일으키게도 하는데 그러한 반응이 무기력, 불안 또는 우울 정서로 나타난다. 폭력을 겪으면서 아동들은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으며, 더불어 자신들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Lynch & Cicchetti, 1998). 이러한 태도는 부정적인 자기-이미지를 구축하고 내재화된 문제들을 일으키도록 자극한다.

부모의 신체적 학대가 자녀의 우울증을 초래하는 예들은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e.g., Kazdin et al., 1985; Kaplan et al., 1998). Sternberg 등(1993)은 부모폭력을 목격하거나 아동학대를 경험한 집단이 비폭력 가정의 자녀들보다 우울증이 월등하게 높은 것을 밝혔다. 국내문헌에서도 가정폭력의 피해경험과 우울증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여러 번 검증된 바 있다(권자영, 1991; 신혜섭, 2000; 정혜원, 1993; 조미숙, 1999). 또한 부모의 폭력으로 형성된 아동기의 우울증은 청소년기를 거처 성인이 된 후까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예를 들면, Marker 등의 연구(1998)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폭력을 목격한 이들이 상대집단에 비해서 우울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면에, 우울증은 아내를 학대하는 남성들의 공통적인 심리적 특징이기도 하며(Edleson & Tolman, 1992), 이성교제폭력의 위험요인(장희숙 등, 2001)으로도 밝혀지고 있다. 민병근과 김현수(1997)는 개인의 우울 등 성격특성이 가정폭력과 청소년 비행에 매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울증이 부모의 폭력행동과 이성교제폭력을 중재하는 요인이 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문헌들은 여성과 남성이 성별에 따른 각기 다른 행동으로 사회화되는 과정을 거치므로 폭력에 노출된 경험도 남녀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고 예측한다. 성별에 따라 학대경험과 이성교제폭력의 상관관계를 다르게 밝힌 연구들(e.g., DeMaris, 1987; Gwartney-Gibbs et al., 1987)은 가정에서 폭력에 노출된 남성이 비슷한 환경의 여성들보다 폭력행동을 더욱 많이 행사한다고 말한다. Foo와 Margolin(1995)은 부모폭력의 목격과 이성교제폭력의 정적인 관계는 주로 남성에게 해당하며 여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부모폭력 목격 및 아동학대 분야의 연구들(Carlson, 1991; Stagg et al., 1989)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보다 공격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많이 표출하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우울증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더욱 많이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므로 학대에 노출된 경험은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매개요인을 통해서 이성교제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폭력/지지행동과 이성교제폭력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그들 사이를 매개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한다. 아울러,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이성교제폭력에 다른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모든 대학을 모집단으로 해서 4년제와 2년제 대학을 1단계로 분류하고 2단계로 남녀공학과 여자대학을 구분했다. 각 단계의 실제 구성비율을 반영해서 조사대상대학을 무작위로 추출했다. 선발된 총 14개 조사대상대학은 12개 4년제 대학(11개 남녀공학과 1개 여자대학)과 2개 2년제 대학(1개 남녀공학과 1개 여자대학)으로 분포되었다. 학년별로 할당비율을 고려한 후 선정된 대학의 학생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기기입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회수된 총 1,261 사례에서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769명 학생들 가운데 이성교제폭력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한 760명 남녀 대학생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이다.

전체 760명 조사대상자 중 672명(88%)이 일반대학에 등록하고 있었으며, 644명(85%)이 남녀공학 대학의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25%, 2학년 25%, 3학년 26%, 4학년 24%로 응답자가 학년에 따라 고르게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1.4세이며, 그들 부모의 월 평균 수입은 264만원(SD=172)이다. 성별분포는 여학생(n=495)이 남학생(n=265)보다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16%에 해당하는 120명이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본 자료에서는 부모폭력을 관찰한 사례들 가운데 95%(n=114)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한 폭력을 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모로부터 신체적 및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사례는 452명(60%)에 이르며, 이들 중 대략 1/3(n=143)이 사정없이 마구 얻어맞거나 가죽벨트/몽둥이로 맞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대체적으로 양호한 지지(평균=3.91; 최대값=5)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서 학대의 경험과 부모의 지지수준이 반드시 상반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n=398, 53%)이 고등학교 때 훈계, 봉사, 선도처분 등 처벌을 받거나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제하는 이성친구에게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총 144명으로 전체표본의 19%를 차지한다. 성별에 따른 가해의 실태는 남성이 57명으로 전체남성들(n=265)의 22%를 기록하고 여성은 87명으로 전체여성(n=495)의 18%를 보여서,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은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사례들 중 부모간 폭력을 관찰한 경우는 19%(n=28)의 비율을 나타내며, 직접적인 학대를 당한 비율은 67%(n=97)로 전체표본에 비해 각

해당 비율이 높게 나왔다. 반대로, 부모지지는 전체평균보다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을 사용한 집단(평균 = 3.78)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 측정도구

(1) 심각한 이성교제폭력: 본 연구는 심각한 형태의 이성교제폭력에 중점을 두고 이를 종속변수로 지정하였다.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은 '이성교제관계에서 한 개인이 상대방에게 손상 또는 고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하는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신체적·성적 학대행위'로 정의한다. 심각한 심리적 폭력은 Straus(1990)의 Conflict Tactics Scale-R(CTS-R)의 7개 문항 중 '때린다고 위협한다', '물건을 던지고 부숴다'의 2개 문항을 포함한다. 심각한 신체적 폭력은 CTS-R(Straus, 1990)의 8개 문항에서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에서 '칼이나 가위 등으로 다치게 하였다'까지 5개의 공격적인 행동(CTS-R의 4, 5, 6, 7, 8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신체적 폭력은 CTS2(참조, Straus et al., 1996)의 기준에 따라 정의되었다. 성적인 폭력행동은 Abusive Behavior Inventory(Shepard & Campell, 1992, ABI)의 수정본(Mills & Malley-Morrison, 1998)에 의해서 측정되었다. 전체 7개 문항에서 성행위를 하기 위해 '약물' 또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 4개 행위들을 심각한 성적 폭력으로 규정하였다.

심리적, 신체적, 성적폭력의 각 항목들은 '없음'에서 '일년에 20번 이상'까지 6점 리커트 양식으로 질문되었다. 분석에서 활용된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은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행사한 빈도를 합한 값이다. 본 자료에서 조사된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의 범위는 27이다. CTS-R의 내부신뢰도 α 계수는 .77에서 .88이며(Straus & Gelles, 1990), ABI의 신뢰도는 .70에서 .92를 기록한다(Shepard & Campell, 1992). 이 연구에서 조사된 이성교제폭력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2이다.

(2) 부모폭력 목적: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용한 신체적 폭력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용한 신체적 폭력을 얼마나 자주 목격했는지 질문하고, '전혀 없음'에서 '하루에 1-2번'까지 6단계 리커트 양식으로 응답한 것을 모두 합한 값이다.

(3) 아동학대 경험: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으로부터 신체적 폭력(ie., 맞음, 사정없이 마구 맞음, 가죽벨트나 몽둥이로 맞음)을 당한 경험과 부모에게 심리적 폭력을 당한 경험을 말한다. 조사대상자들은 신체적 폭력과 관련한 6개 문항과 심리적 폭력에 해당하는 1개 문항에서 '전혀 없음'에서 '하루에 1-2번'까지의 6점 방식으로 응답했으며, 이들을 모두 합한 값을 분석에서 사용했다.

(4) 부모지지도: 이영자(1996)의 사회적 지지척도의 일부를 수정하여 부모로부터 받는 정서적, 평가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에 대한 내용의 4개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원 도구의 Cronbach α 평균치는 .92이며(고려대학교, 1999), 본 자료의 α 계수는 .89이다.

(5) 갈등해결기술: 갈등해결기술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관련한 3개 질문을 통해서 측정되었다.

갈등상황에서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 '감정을 조절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의 항목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6) 우울증 : 응답자의 우울 수준은 Beck Depression Inventory(Beck et al., 1961, BDI)를 기초로 정서적, 인지적, 생리적 증후군에 관한 7개 문항을 3점 척도로 측정했다. 원판의 내부신뢰도 계수(split-half)는 .93이며, 본 연구의 전체 수정문항들의 α 계수는 .61을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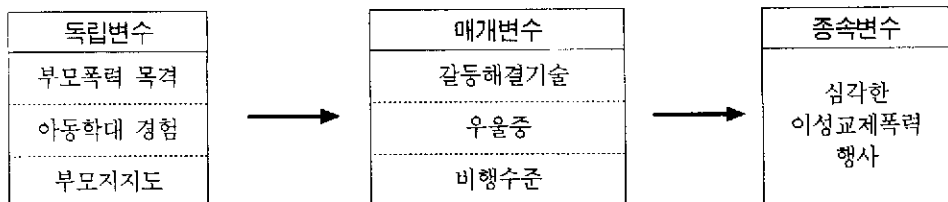
(7) 비행행동 : 가출한 횟수와 고등학교에서 훈계,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선도처분, 퇴학을 당한 경험을 개별적으로 측정하여 모두 합한 값이다. 비행횟수의 최소값은 2이며 최대값은 8을 기록한다.

3) 분석방법과 연구모형

본 연구는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에 대한 부모행동과 매개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 SEM) 분석을 활용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모형과 이론모형을 결합해서 모형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정식모형을 의미한다. <그림 1>은 본 연구가 제안한 모형을 도식화한 것으로, 부모폭력 목격, 아동학대 경험, 부모지지도가 각각 갈등해결기술, 우울, 비행행동을 매개로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높은 빈도의 부모폭력 목격과 아동학대의 경험은 갈등해결기술을 저하시키고 우울 성향과 비행행동을 증가시키면서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낮은 수준의 부모지지는 자녀의 갈등해결기술과 우울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비행수준을 높이면서 이성교제폭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한편, 본 연구는 세 형태의 부모행동과 이성교제폭력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것으로 전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SEM을 개별적으로 실행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든 모수치들은 AMOS 프로그램(Arbuckle & Wothe, 2000)을 사용해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절차에 의해 산출되었다.

<그림 1> 연구모형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방법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우선, 서울 및 수도권 대학의 학생을 조사대상자로 한정하여서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의 미혼남녀 이성교제 인구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응답자가 스스로 보고한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 여부가 문제시된다. 특히 본인 및 부모의 폭력행동에 대한 응답자의 서로 다른 인식과 사회적 바람직성 경향을 통제하지 못했다. 부모의 행동에 관한 자료는 회고적 보고에 의존하고 있어서 얼마나 정확한 경험을 반영했는지 가능하기 어렵다. 또한 아동학대만을 경험한 사례, 학대를 당한 경험은 없으나 부모폭력을 목격한 사례, 그리고 이 둘을 모두 경험한 집단들간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부모폭력 목격과 아동학대경험의 효과는 서로 중복된 영향일 수 있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 1〉은 부모폭력 목격, 아동학대 경험, 그리고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 비폭력 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도표이다. 전체 760명 조사대상자 가운데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사례는 16%(n=120)이며 부모로부터 신체적 및 심리적 학대를 경험한 사례는 60%(n=452)에 이른다. 부모의 수입은 비폭력 집단이 가장 높고(평균=284만원) 부모폭력을 목격한 집단이 가장 낮음(평균=220만원) 나타났다. 부모폭력을 목격한 자녀들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갈등해결기술은 세 집단들간에 별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부모폭력을 목격한 집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온다. 비폭력 가정의 자녀들은 폭력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부모지지를 받았으며 비행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부모폭력을 목격한 집단(2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 다음이 아동학대를 당한 집단(22%), 비폭력 집단(15%) 순이다. 폭력가정이 비폭력가정에 비해 더욱 많은 이성교제폭력을 발생시키고는 있으나, 그들 가정의 자녀들 중 상당수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표 1〉 부모폭력 목격, 아동학대 경험, 비폭력 가정 집단의 특성

변 수	부모폭력 목격 (n=120)	아동학대 경험 (n=452)	비폭력 가정 (n=281)
	M(SD)	M(SD)	M(SD)
연령	21.94(2.74)	21.30(2.56)	21.43(2.95)
부모수입	219.9(153.6)	256.6(158.7)	284.4(196.6)
부모지지도	3.61(0.95)	3.81(0.84)	4.06(0.71)
갈등해결기술	3.48(0.75)	3.47(0.74)	3.45(0.77)
우울증	1.63(0.34)	1.60(0.34)	1.58(0.31)
	n(%)	n(%)	n(%)
성별			
남	46(38)	160(35)	96(34)
여	74(62)	292(65)	185(66)
비행경험			
예	68(57)	261(58)	126(45)
아니오	52(43)	190(42)	155(55)
심각한 이성교재폭력			
예	28(23)	99(22)	41(15)
아니오	92(77)	353(78)	240(85)

2) 변수들간의 관련성

<표 2>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심각한 이성교제 폭력	비행	우울증	갈등해결 기술	부모폭력 목적	부모지지	아동학대 경험
심각한 이성교 제폭력	Pearson Correlation	1.000	.116(**)	.106(**)	-.196(**)	.008	-.084(*)	.056
	Sig.(2-tailed)		.001	.004	.000	.820	.020	.124
비행	Pearson Correlation	.116(**)	1.000	-.049	-.041	.027	-.136(**)	.157(**)
	Sig.(2-tailed)	.001		.180	.259	.467	.000	.000
우울증	Pearson Correlation	.106(**)	-.049	1.000	-.116(**)	.056	-.190(**)	.023
	Sig.(2-tailed)	.004	.180		.001	.129	.000	.529
갈등해 결기술	Pearson Correlation	-.196(**)	-.041	-.116(**)	1.000	.023	.084(*)	.007
	Sig.(2-tailed)	.000	.259	.001		.533	.021	.840
부모폭 력목적	Pearson Correlation	.008	.027	.056	.023	1.000	-.235(**)	.392(**)
	Sig.(2-tailed)	.820	.467	.129	.533		.000	.000
부모 지지	Pearson Correlation	-.084(*)	-.136(**)	-.190(**)	.084(*)	-.235(**)	1.000	-.282(**)
	Sig.(2-tailed)	.020	.000	.000	.021	.000		.000
아동학 대경험	Pearson Correlation	.056	.157(**)	.023	.007	.392(**)	-.282(**)	1.000
	Sig.(2-tailed)	.124	.000	.529	.840	.000	.000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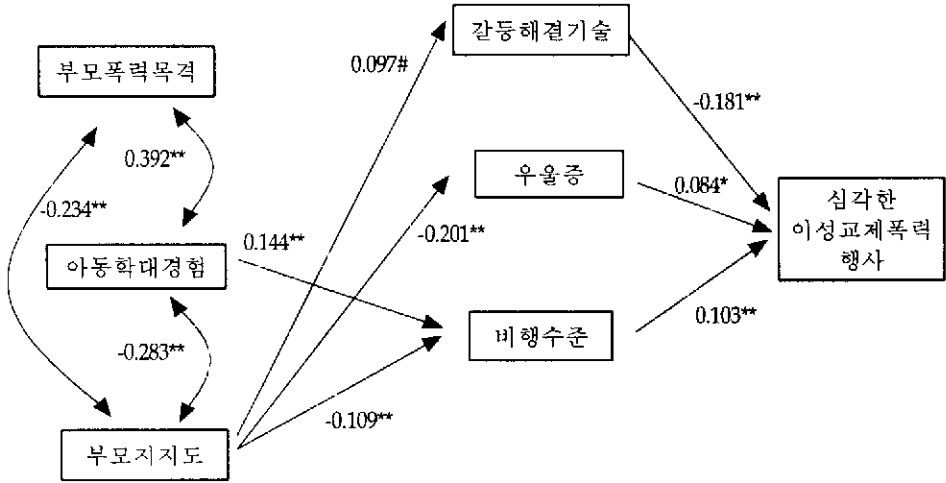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표 2>는 구조방정식 모형에 포함된 7개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부모폭력 목적과 아동학대는 정적인 관계에 있으며 이들 각각은 부모의 지지도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세 개의 독립변수들은 $\alpha = .01$ 에서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아동학대는 비행과 상관관계를 보이 나 다른 두 매개변인들과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도는 모든 매개변수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비행과 우울증의 상관계수가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부모폭력 목적은 매개변인들과 별 연관성이 없었다. 심각한 이성교제폭력과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는 3개 매개 변수들이며 미약한 수준에서 부모지지도와 연결되어 있다.

3) 부모의 행동이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에 미치는 영향

(1) 전체표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그림 2〉 부모의 행동이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n=760)



= p<0.1, * = p<0.05, ** = p<0.01

〈표 3〉 전체표본 모형의 인과효과

유의미한 효과	부모지지도	아동학대 경험	부모폭력 목적
총 효과	-0.118	0.047	0.032
직접효과	-0.113	0.015	0.000
간접효과	-0.004	0.032	0.032

〈그림 2〉는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부모의 폭력과 지지행동이 이성교제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경로분석의 결과이다. 제안모형은 표준부합치(NFI=0.999)에 의해 본 자료에 부합되는 모델로 인정되었다. 그림에는 측정오차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서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변수들만 선택해서 표준화된 경로계수를 표시했다.

전반적으로, 모형의 독립변수들은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특히 부모폭력 목적은 어느 매개변수들과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단지 부모지지와 아동학대 경험을 통한 간접효과로 이성교제폭력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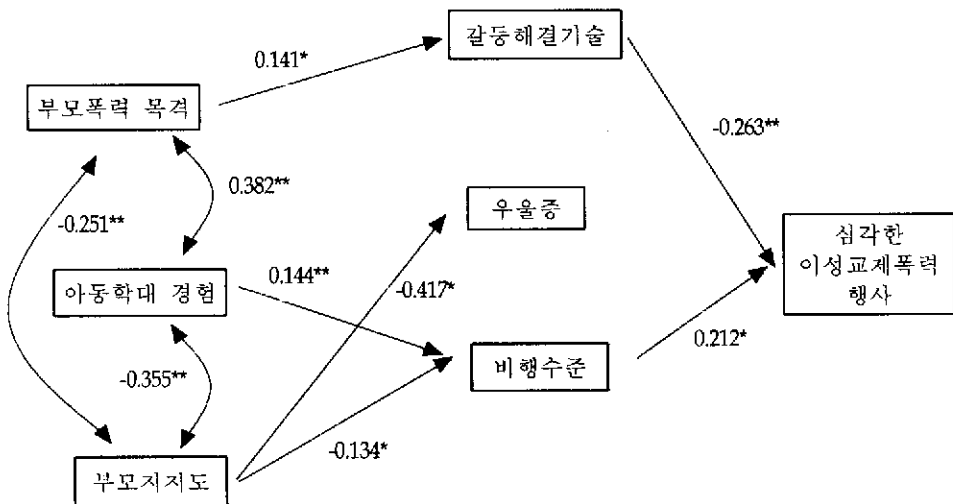
선행연구들(Kazdin et al., 1985 ; Kaplan et al., 1998)과는 달리, 아동학대의 경험은 갈등해결기술

이나 우울증의 예측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alpha < .01$ 수준에서 비행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b = .144$, $C.R = 3.626$; $p < .01$) 관계를 보여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당할수록 비행횟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행수준은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나($C.R. = 2.863$) $t = 1.96$), 아동학대 경험은 비행을 매개로 해서 이성교제폭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이 제시하듯이, 아동학대의 직접효과는 0.015이며, 간접효과는 0.032로서 전체적인 영향력은 0.047 수치를 나타낸다.

부모지지도는 갈등해결기술($b = .097$; $p < .10$), 우울($b = -.201$; $p < .05$), 비행($b = -.109$; $p < .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들을 통해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부모의 지지가 낮으면 갈등해결기술이 감소하고, 반대로 우울증과 비행수준은 증가하면서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이 발생할 확률을 높이고 있다. 직접효과는 -0.113으로서 부모지지가 오히려 부모의 폭력행동보다 이성교제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자녀의 폭력에 대한 부모행동의 효과는 부모지지가 가장 높으며, 그러한 효과는 매개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모형에서 예측변수들이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을 설명하는 변량은 58%(다중상관자승치 = .58)를 차지한다.

(2) 남성표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그림 3> 부모의 행동이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n = 264$)



* = $p < 0.05$, ** = $p < 0.01$

〈표 4〉 남성표본 모형의 인과효과

유의미한 효과	부모폭력 목격	아동학대 경험	부모지지도
총 효과	0.048	0.031	-0.0003
직접효과	0.037	0.017	-0.016
간접효과	0.011	0.013	0.016

〈그림 3〉은 남성 264명을 표본으로 해서 갈등해결기술, 우울, 비행이 부모의 폭력/지지행동과 이성교제폭력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검증한 결과이다. 제안모형은 충분한합치수인 NFI가 .95를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에 직접 연결되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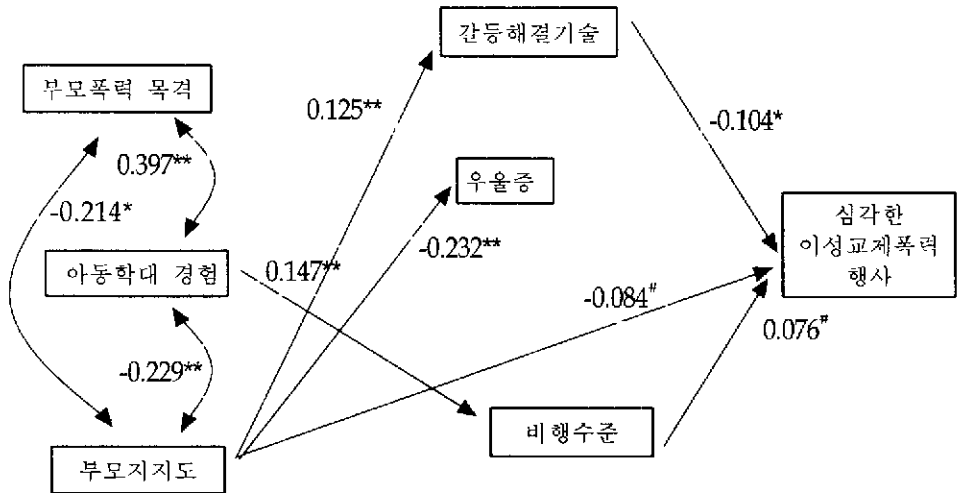
〈그림 2〉와는 대조적으로, 남성표본에서는 부모폭력을 관찰한 경험이 갈등해결기술($b=.141$;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갈등해결기술이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에 영향을 주면서 0.037 수치의 직접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4〉에 따르면 부모폭력 목격의 총효과는 아동학대 경험과 부모지지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가산되어 0.047로 계산된다. 그러나 부모폭력 목격과 갈등해결기술의 경로부호는 본 연구의 가설과 반대로 나와서 결과에 대한 타당성이 문제시된다. 한편, 갈등해결기술이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에 미치는 영향($C.R=-4.448$) $t=1.96$)에 비해서 갈등해결기술이 부모폭력 목격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18%로 매우 낮게 나온다.

아동학대의 경험은 전체표본에서 보여준 것과 비슷하게 비행수준($b=.144$;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으면서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매개변인들 가운데 비행수준이 세 개의 독립변수들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고 있다(다중상관자승치=.043).

이성교제폭력에 대한 부모지지의 효과는 〈그림 2〉에 비해 매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우선, 부모지지는 갈등해결기술과 아무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우울증이 부모지지와 이성교제폭력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서 부모지지는 단지 비행수준($b=-.134$; $p<.05$)을 통해서 자녀의 폭력에 영향을 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부모폭력 목격 및 아동학대 경험이 이성교제폭력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관계로 부모지지의 전체적인 영향력이 -0.0003을 기록하면서 그 효과는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부모지지도보다는 부모의 폭력행동이 남성들의 이성교제폭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3) 여성표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그림 4> 부모의 행동이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n=495)



= p<0.1, * = p<0.05, ** = p<0.01

<표 5> 여성표본 모형의 인과효과

유의미한 효과	부모지지도	아동학대 경험	부모폭력 목격
총효과	-0.100	0.033	0.030
직접효과	-0.097	0.011	0
간접효과	-0.002	0.022	0.030

<그림 4>는 495명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성교제폭력에 대한 부모행동의 효과를 조사한 경로도형의 결과이다. 제시한 모형은 표준부합치(NFI=.998)를 통해 자료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성교제폭력에 대한 부모폭력 목격의 직접효과는 없었으며 아동학대 경험과 부모지지를 통한 간접효과만이 나타난다. 여성표본에서도 아동학대 경험은 비행행동(b=.147 : p<.01)을 매개로 폭력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앞의 두 결과와 그 경로가 같다. 다만, 남성들과 달리 직접효과보다 간접효과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앞의 두 분석들과 달리, 부모의 지지(b= -.084 : 0<.10)는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매개변인들과의 관계를 보면, 갈등해결기술(b=.125 : p<.001)만이 부모지지와 이성교제폭력 사이를 매개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부모지지가 단독 또는

비효율적인 갈등해결기술을 통해서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고 말할 수 있다. <표 5>는 전체표본에서와 같이 부모지지의 효과가 다른 독립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모형에서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의 다중상관상승치는 .42를 기록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폭력 및 지지행동이 자녀의 이성교제폭력에 영향을 주는지 탐색하고 그 영향의 경로를 살펴보았다. 이성교제폭력에 관련한 세대에 걸친 폭력의 연속성 가설은 일부만 지지되었다. 부모로부터 직접 학대를 받은 경험은 이성교제폭력의 확률을 높이고 있으나 부모 폭력 목적은 이성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갈등해결기술, 우울, 비행이 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폭력행동을 매개하는지 검증한 결과도 연구가설의 일부만을 지지하고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 따르면 비행수준만이 아동학대 경험과 이성교제폭력 사이의 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분석모형들은 아동학대가 비행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잦은 횟수의 비행행동이 다시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비행행동은 성별에 상관없이 아동학대와 이성교제폭력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선행연구들(Choice et al., 1989; Kazdin et al., 1985)과는 달리, 갈등해결기술과 우울 성향은 아동학대 경험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대학생은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편중된 표본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아동학대 사례들이 보여주는 보편적인 현상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는 아동학대로 인한 영향들 가운데 어떤 특정 요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감소한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Riggs와 O'Leary의 연구(1996)에서와 같이, 본 자료는 부모폭력 목적과 이성교제폭력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가 부모폭력 목적보다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Sternberg 등(1993)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모폭력 목적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쉼터나 사회복지기관에 접촉한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아동들이 보이는 단기적인 결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을 표본으로 한 이 연구는 어느 정도 부모폭력 목적의 장기적 결과를 측정했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폭력을 관찰한 경험은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에 비해 그 영향력이 쇠퇴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모폭력 목적과 이성교제폭력의 상관성을 밝힌 연구들(O'Keefe et al., 1986; Wolfe & Korsh, 1994)을 고려할 때 두 변수간의 관계는 향후 일관된 검증들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남성표본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부모폭력 목적이 갈등해결기술에 영향을 주면서 심각한 이성교제폭력에 이르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구가설과는 다르게, 부모폭력을 목격한 빈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높은 수준의 갈등해결기술을 기록하고 있어서 결과에 대한 설명이 쉽지 않다. 이

는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 경향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으며, 세 개 단일문항으로 구성된 갈등해결기술 척도의 측정상의 문제로 기인했다고도 보여진다.

본 연구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부모의 폭력보다 부모의 지지도가 자녀의 이성교제폭력에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한해서는 낮은 수준의 부모지지가 $\alpha < .10$ 수준에서 이성교제폭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부모지지의 효과는 매개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체표본에서는 갈등해결기술, 우울, 비행이 모두 매개변인으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남녀를 분리한 개별적 분석에서는 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남성표본에서는 비행수준이 매개기능을 하며, 여성표본에서는 갈등해결기술이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모지지는 남녀에 따라 서로 다른 중간요인에 의해 이성교제폭력에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부모지지가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임을 검증한 연구들(e.g., Rankin & Wells, 1994; Stern & Smith, 1995)은 많으나, 그러한 관계가 남성에게 더욱 선명하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부모지지가 여성의 갈등해결기술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새로운 결과로서 후속연구의 재검증을 요한다.

본 자료에서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성교제폭력에 관련한 세대에 걸친 폭력의 순환은 아동학대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아동학대 경험은 성별에 관계없이 비행을 통해 이성교제폭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한편, 이성교제폭력은 부모의 폭력보다 부모의 지지도에 의해 더욱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비지지적인 태도는 자녀의 갈등해결기술, 우울, 비행에 영향을 주면서 이성교제폭력 행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낮은 부모지지는 특히 여성들의 갈등해결기술을 약하게 하며 남성들의 비행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이성교제폭력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이성교제폭력을 예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부모들에게 양육과 폭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내용에는 부모의 관심과 수용이 자녀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르게는, 부모지지와 이성교제폭력을 매개하는 중간요인에 중점을 둔 개입전략이 있다. 긍정적인 갈등해결기술을 향상시키는 개입은 이성교제폭력을 줄이는 대안이 되며, 특히 여성들에게 그 효과가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들에게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폭력을 갈등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개인과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비지지적인 부모의 자녀들이 심각한 우울증을 보이지 않도록 사회지지체계를 개발해 주는 작업도 중요하다. Kliever 등(1998)이 주장하듯이, 중요타자의 정서적 지지는 헌신과 관심이 부족한 가정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서 이성교제폭력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조언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주변 어른과 청소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강화시키는 복지서비스프로그램도 유익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학대를 경험했거나 부모지지가 낮은 자녀들이 비행행동을 표출할 때 이성교제폭력의 위험이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의 비행을 억제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할 고위험 상황

에 있는 개인들이 그 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특별히 폭력가정이나 비지지적인 가정의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비행행동을 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들이 모색되고 실천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또래집단을 활용해서 청소년들끼리 서로 감독할 수 있는 복지사업들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청소년에게 이성교제폭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방정책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이성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있는 현 시점에서 올바른 이성교제를 위한 학교와 사회의 노력은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다양한 실천 장에서 이성교제폭력을 예방하고 개입하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이성교제폭력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일차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아동기의 폭력경험과 이성교제폭력의 상관관계는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더욱 선명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추적조사는 응답자의 회고적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변수들간의 시간적인 우선성을 구별하는 데도 용이하다. 또한 심층적인 면접조사를 활용한 질적인 자료들을 첨가한다면 세대간 폭력을 반복하는 집단과 중단하는 집단을 차별하는 요인들을 보다 심도 있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폭력행동을 매개하는 또 다른 주요 변인들을 발견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환경적 요소들이 그 예가 되겠다.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아동학대의 측정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학대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이성교제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노력도 요구된다. 후속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고르게 분포된 대표성 표본을 중심으로 다양한 미혼남녀 이성교제 인구를 반영하는 연구결과를 산출하고, 이성교제 집단들간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려대학교. 1999. 『심리척도 핸드북』, 학지사.
- 권자영. 1991.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민병근, 김현수. 1997. "부부관계, 부부역동성 및 가정폭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140, pp. 878-895.
- 신혜설. 2000. "아내구타가정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6, pp. 67-85.
- 이영자. 1996.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박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장희숙, 조현각. 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요인들", 『한국가족사회복지학』 8, pp. 178-198.
- 정혜원. 1993. "가정내의 아동학대, 훈육태도와 아동의 성격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조미숙. 1999.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심리, 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 pp. 295-326.
- Arbuckle, J. L., & Wothe, W. 2000. *Amos 4.0 User's Guide*. Chicago: Smallwaters Corporation.
- Baund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ill.
- Beck, A. T., Ward, C.,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3-63.
- Caliso, J. A. & Milner, J. S. 1994. "Childhood physical abuse, childhood social support and adult child abuse potentia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9, 27-44.
- Carlson, B. E. 1991. "Outcomes of physical abuse and observation of marital violence among adolescents in placem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 526-534.
- Choice, P., Lamke, L., & Pittman, J. 1995.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marital distress as mediating factors in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wife battering," *Violence and Victims*, 10, 107-119.
- Comins, C. A. 1984. "Courtship violence: A recent study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National Family Violence Research Conference, University of New Hampshire, Durham, NH.
- Cummings, E. M., & Davies, P. 1994. *Children and Marital Conflict*. New York: Guilford.
- DeMaris, A. 1987. "The efficacy of a spouse abuse model in accounting for courtship viol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8, 291-305.
- Edleson, J. L., & Tolman, R. M. 1992. *Intervention for Men Who Batter*. CA: Sage.

- Egeland, B. 1988. "Intergenerational continuity of parental maltreatment of children," In K. D. Browne, C. Davies, & P. Stratton (Eds.), *Early Prediction and Prevention of Child Abuse* (pp. 87-102). New York: John Wiley.
- Egeland, B., & Jacobvitz, D. 1984. "Intergenerational continuity of parental abuse,"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Biosocial Perspectives in Abuse and Neglect, York, ME.
- Fantuzzo, J. W., & Mohr, W. K. 1999. "Prevalence and effects of chil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The Future of Children*, 9(3), 21-32.
- Fergusson, D. M., & Horwood, L. J. 1998. "Exposure to interparental violence in childhood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young adulthood," *Child Abuse & Neglect*, 22(5), 339-357.
- Foo, L.,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 351-375.
- Follingstad, D. R., Rutledge, L. L., McNeill-Harkins, K., & Polek, D. S. 1992. "Factors related to physical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In E. C. Viano(Ed.), *Intimate Violence* (pp. 121-135). PA: Taylor & Francis
- Gwartney-Gibbs, P. A., Stockard, J., & Brohmer, S. 1987. "Learning courtship violence: The influence of parents, peers, and personal experiences," *Family Relation*, 36, 276-282.
- Holden, G. W. & Ritchie, K. L. 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Child Development*, 62, 311-327.
- Hunter, R. S. & Kilstrom, N. 1979. "Breaking the cycle in abusive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6, 1320-1322.
- Jaffe, P., Wolfe, D. S., & Wilson, S. 1990. *Children of Battered Women*. Newbury Park, CA: Sage
- Jones, D. P. 1997. "Social support and coping strategies as mediators of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21, 207-209.
- Jorgensen, S. R. 1986. *Marriage and the Family*. Macmillan: New York.
- Kalmus, D. 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11-19.
- Kaplan, S. J., Pelcovitz, D., Salzinger, S., Weiner, M., Mandel, F. S. 1998. "Adolescent physical abus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5, 951-959.
- Kaufman, J. & Zigler, E. 1987. "Do abused children become abusive par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186-192.
- Kaufman, J. & Zigler, E. 1993.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buse is overstated," In R. J. Gelles & D. R. Loseke (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pp. 209-221). CA: Sage.
- Kazdin, A. E., Moser, J., Colbus, D., Bell, R. 1985. "Depressive symptoms among physically abused and psychiatrically disturb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298-307.
- Kinard, E. M. 1995.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mpetence in abused children," *Journal of Family*

- Violence*, 10, 73-98.
- Kliewer, W., Lepore, S. J., Oskin, D., Johnson, P. D. 1998. "The role of social and cognitive processes in children's adjustment to community violence," *Journal of Consultant of Clinical Psychology*, 66, 199-209.
- Lloyd, S. 1987. "Conflict in premarital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36, 290-294.
- Lynch, M., & Cicchetti, D. 1998. "An ecological transactional analysis of children and contexts," *Development Psychopathology*, 10, 235-257.
- Magdol, L., Moffitt, T. E., Caspi, A., Newman, D. L., Fagan, J. & Silva, P. A. 1997. "Gender differences in partner violence in a birth cohort of 21-year-old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1), 68-78.
- Margolin, G., Burman, R. S., & John, R. S. 1989. "Home observations of married couples reenacting naturalistic conflicts," *Behavioral Assessment*, 11, 101-118.
- Makepeace, J. M.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97-102.
- Maker, A. H., Kemmelmeier, M., & Peterson, C. 1998. "Long-term psychological consequences in women of witnessing parental physical conflict and experiencing abuse in childhoo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3, 574-589.
- Marshall, L. L. & Rose, P. 1988. "Family of origin and courtship violence," *Journal of Counsel. Devel.*, 66, 414-418.
- McCloskey, L. A., Figueredo, A. J., & Koss, M. P. 1995. "The effects of systemic family violence on children's mental health," *Child Development*, 66, 1239-1261.
- Mills, R.B. & Malley-Morrison, K. 1998, "Emotional commitment, normative acceptability and attributions for abusive partner behavi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 pp. 682-699.
- Neighbors, B., Forehand, R., McVicar, D. 1993. "Resilient adolescents and interparental confli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3, 462-471.
- O'Keeffe, N., Brockopp, K., & Chew, E. 1986. "Teen dating violence", *Social Work*, 31, 456-468.
- Rankin, J. H., & Wells, E. L. 1994. "Social control, broken homes and delinquency," In G. Barak(Ed.), *Varieties of Criminology*. Westport Conn: Praeger.
- Riggs, D. S. & O'Leary, K.D. 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4), 519-540.
- Riggs, D. S., O'Leary, K. D., & Breslin, F. C. 1990. "Multiple correlates of physical aggression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 61-73.
- Rosenbaum, A., & O'Leary, D. K. 1981. "Children: The unintended victims of marital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1, 692-699.
- Shepard, M. F. & Campbell, J. A. 1992. "The abusive behavior inventor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7, 291-305.

- Sigelman, C. K., Berry, C. J., & Wiles, K. A. 1984.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5(6), 530-548.
- Simons, R. L., Lin, K., & Gordon, L. C. 1998. "Socialization in the family of origin and male dating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467-478.
- Stagg, V., Wills, G. D., & Howell, M. 1989. "Psychopathology in early childhood witnesses of family violence,"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9, 73-87.
- Stern, S. B., & Smith, C. A. 1995. "Family processes and delinquency in an ecological context," *Social Service Review*, 69, 703-731.
- Sternberg, K. J., Lamb, M. E., Greenbaum, C., Cicchetti, D., Dawud, S., Cortes, R. M., Krispin, O., & Lorey, F. 1993.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depression," *Development Psychology*, 29, 44-52.
- Stets, J. E., & Pirog-Good, M. A. 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ical Quart.*, 50, 237-246.
- Straus, M. A. 1990. "The Conflict Tactics Scale and its critics," In M. A. Straus & R. J. Gelles (Eds.),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pp. 49-73).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traus, M. A., Smith, C. 1990. "Family patterns and primary prevention of family violence," In M. A. Straus & R. J. Gelles (Eds.),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pp. 507-528).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Wolfe, D. A. & Korsch, B. 1994. "Witnessing domestic violence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ediatrics*, 94, 594-599.

The Influence of Parental Violence and Support Behavior on Dating Violence

Chang, Hee-Suk

(Assistant Professor of Social Welfare, SungKongHoe Univ.)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parental behavior on their children's dating violence and the pathways by which parental behavior affected their children's violent acts in their respective dating relationships. The related variables in parental behavior were marital violence, child abuse, and parental support. This study identified whether parental violence and support behavior effected dating violence, and if that dating violence was in any way mediated by conflict resolution skills, depression, or delinquency.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d any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that were affected by parental behavior. Subjects included 760 students from 14 of the universities in and around Seoul.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was employed to fulfill the study objectives. The SEM results were the following: The experience of child abuse was associated with severe forms of dating violence, and was only mediated by delinquent acts. Such outcomes were consistent across genders. In this data set, in contrast to the previous studies, the observation of parental violence was not related to children's violent behavior.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SEM, parental support rather than parental violence was more likely to influence their children's dating violence. The lower the level of parental support the greater the negative affect on children's conflict resolution skills, depression, and delinquency, which in turn had an influence on their dating violence. More specifically, an attitude of parental neglect adversely affected women's conflict resolution skills, and increased the frequency of male delinquent behavior. In the light of these findings, practical implications for decreasing dating violence were discussed.

[접수일 2002. 6. 4 게재확정일 2002. 6. 23]